

한일경제협회 제31회 정기총회 & 회장단회의(이사회) 개최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회장 : 조석래(趙錫來)/(주)효성 회장]의 제31회 정기총회가 2월 21일(화) 오전 11시 30분에 서울 롯데호텔 37층 가넷 스위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강호문 삼성전자(주) 부회장이 협회 부회장으로 새로이 선임되었으며, 임기가 만료된 김승연 부회장[(주)한화 회장], 김희용 부회장[동양물산기업(주) 회장], 이운형 부회장[(주)세아제강 회장], 정준양 부회장[(주)포스코 회장]이 재선임되었다.

또한 삼성전자 이윤우 상임고문은 그동안

안의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고문으로 추대키로 하였으며, 이승호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변호사를 감사로 새로 선임하였다. 그리고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전무이사를 상근부회장으로 선임하였다.

협회는 최근의 불확실한 경제상황 및 경기부진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한일 양국 경제계의 대화 채널을 강화하여 두 나라 사이에 사람과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구체화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부품소재·역조개선 중심





〈이사회 전경〉

의 기존 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 체제를 같이하는 한일이 산업분야의 인 재교류 확대, 신성장분야에서의 R&D 협력, 서플라이 체인의 새로운 구축, 제3국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등의 새로운 협력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이를 실현해나가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의 지를 다졌다.

한편 협회는 한일 양국 간에 개최되는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회의인 한일경제



〈정기총회 전경〉

인회의를 오는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오 사카에서 개최하며, 한일이 하나의 경제권 을 형성하여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심화 및 경기 부진에 한일 이 공동대처하는 방안을 찾아 양국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기총회에 앞서 2012년도 회장단 회의 (이사회)가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에 롯데 호텔 36층 아스토 스위트에서 개최되었다.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 성황리에 폐막

-하나의 경제권 구축을 향한 한일협력-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 간의 경제교류를 민간 차원에서 활성화해 나가고자 1969년 설치 이후 매년 1회 양국이 교대로 개최해 오고 있으며, 한일 간의 경제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양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제44회째를 맞이하여 (사)일한경제 협회와 공동으로 2012년 5월 15일~5월 18일 일본 오사카시에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한국측에서는 조석래(趙錫來) 단장 등 144명, 일본측에서는 사사키 미키오(佐々木幹夫) 단장 등 167명 합계 311명의 경제인이 참가하였다.

이번 경제인회의에서는,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의 불투명성 심화가 한일 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일협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였으며, 동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성장축으로써 기능해 가기 위해서는 역내통합 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하였다.

한편, 회의에 앞서 조석래 단장 등 한국측 단장단 9명은 야마구치 쓰요시(山口 壯) 외무 부대신, 후지무라 오사무(藤村 修) 내각관방장관, 야나기사와 미즈요시(柳澤 光美) 경제산업 부대신을 예방하고 한중일 3국 간 FTA 체결을 통해 유럽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 간 높은 수준의 FTA/EPA 체결을 선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할 최초의 기후변화 특화기금이자 UN 산하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유치에 대해 일본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본 회의는 1969년 제1회 회의 개최 이후 한번도 빠짐없이 매년 계속되어 왔으며, 일본 오사카에서의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었으나 우리 측에서는 역대 최대 인원인 144명이 참가하여(양국 합계 311명) 한일협력을 바라는 우리 기업의 강한 의욕을 느낄 수 있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 修) 내각관방장관 예방〉



〈개회식 전경〉





〈야나기사와 미츠요시(柳澤 光美) 경제산업성 부대신 예방〉



〈신각수 주일한국대사 주최 만찬회〉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 주요내용

1) 동북지방의 피해 극복을 위해 한일 협력 기대

2) 세계에서 한일 양국의 위상과 한일 협력 강화

- 양국경제의 번영과 동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성장축(成長軸)으로써 기능해 가기 위한 역내 통합경제권의 구축
- 미국 및 유럽의 불안정한 금융정세와 중동 정세,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북한의 움직임 등이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을 강화

3) 한일 FTA/EPA의 체결을 촉구

- 「하나의 경제권」형성을 지지하고 조속한 한일FTA/EPA 체결을 촉구
-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서 상호 투자협정 서명이 이루어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일이 먼저 수준 높은 FTA/EPA를 추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공유

4)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향한 구체적 시책 제안

- 동일본 대지진과 태국의 홍수 등 자연재해가 양국은 물론 아시아 전체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장애가 된 것을 교훈삼아 한일의 제후에 의한 서플라이 체인의 재구축 등의 대응책을 강화
- 견본전시회(見本市)·상담회 등의 사업을 통해 일본기업의 한국산 부품·소재조달의 확대와 대한투자 활성화를 도모
-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는 양국에서 간호·요양보호(介護), 예방의료 등의 의료분야에서의 공동연구, 정보교환의 적극 추진
- 한일 기업이 제후한 R&D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연구·개발비의 코스트 절감, 안정적인 신규시장 확보
-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왕래 촉진

5) 제3국 공동진출 확대 노력

- 양국이 제후하여 제3국 글로벌 전개를 추진
- 양국 제후에 의한 금속·에너지 등의 중요자원의 확보와 양국의 높은 기술력을 배경으로 한 인프라 수출의 추진
- 많은 경제인이 본 글로벌 전개의 중요성을 실감·인식하여 새로운 프로젝트의 형성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하고, 제3국의 현장에 시찰 미션을 파견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
- 양국 정부에 대해 계속하여 규제완화, 제도금융 등의 폭넓은 지원을 요청

6) 인재, 문화교류 확대를 통한 관광객 유치

- 고교생·대학생·대학원생 등 차세대를 젊어질 청소년들의 교류를 위해 계속하여 정부지원을 요청하고 양국 경제협회가 협력하여 대처
- 한일교류 촉진을 위해서 한일축제한마당 등과 같은 풀뿌리 차원에서의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활동이 궁극적으로 관광객의 확대에 기여

7)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협력 및 차기회의 개최지 선정

- 여수세계박람회를 비롯하여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한 한일 협력 강화
- 제45회 한일경제인회의, 2013년 대한민국에서 개최

제13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지난 2012년 3월 22일(목)~23일(금) 일본 도쿄<호텔 오후라 도쿄 별관 2F 오차드룸>에서 제13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가 양측 위원 53명(한국측: 24명, 일본측: 29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한국측 대표 : 한국무역협회 안현호 상근부회장)

(*일본측 대표 : 아소라파즈시멘트(주) 아소 유타카 사장)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한일 간 산업·무역·투자 등 공통의 과제에 대한 제언 및 실천적 문제해결형 회의로 한일경제인회의를 통해 양국 정부 및 관계기관 등에 정책제언 및 실현을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한일 양국 경제인들은 작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두 나라가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양국 경제의 번영과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며, 동아시아가 하나의 안정된 축으로서 세계경제의 흐름속에서 기능해 나가야 한다는 데 합의를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이번 회의에서의 테마를 ①한일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하는 생산네트워크의 새로운 구축, ②제3국 공동진출(플랜트, 자원 개발) 방안, ③전 제조업 분야 등 산업인재 교류 활성화 방안, ④신성장 산업 분야



〈이종운 부회장, 이수철 코디네이터, 안현호 চে어맨, 아소 유타카 চে어맨, 다카다 오부야키 코디네이터〉

R&D네트워크에서의 한일협력으로 정하고,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위해서 한일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였다.

한편, 2일차 자유토론 시간에는 한일 양

측의 참가위원 전원이 참가하여 개개인이 생각하고 있거나 또는 소속기업 차원의 한일 간의 경제협력방안에 대한 소신과 동 회의의 발전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제13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주요 논의 결과

1. 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의 성격과 금후의 한일협력 방향

- 한일 간 통화 스와프 규모를 무한대로 확대하면 한일FTA체결에 유리하게 작용
- 한일을 시야에 넣은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환경을 조성
-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의 활용을 저해하는 규정을 축소·제거
- 제3국 공동진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글로벌 데스크를 설치, 금융기구 등을 정비
- 대지진 피해복구 과정에서 한국의 협력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 필요
- 양국 간 통상현안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상설 협의체 구축 및 수시 협의

2. 금후의 한일경제협력의 사고

- 한일 양국의 수요를 포함한 자원획득 추진
- 제3국에 대한 인프라 수출 협력
- 중소기업 간의 상호보완과 제휴

3. 한일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하는 생산네트워크의 새로운 구축 - 한일 간 협력방안

(일본정부)

① 한일 FTA 추진의 기회로 삼을 필요 ② M&A,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한국에도 적극 적용 ③ 지역 중소기업 집단진출지로 한국을 적극 알선 ④ 일본기업의 한국진출에 대한 호의적인 분위기 조성

(한국정부)

① 일본기업 유치전략 재검토 : 인센티브 부여형 ⇒ 사업비전 제시형 ② 한국 대기업은 일본기업과 협력 강화 ③ 일본 중소기업 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양국 종합상사 등) ④ 자금 등 일본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 마련 ⑤ 한국진출 일본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체제 구축

(한국 기업)

① 일본기업과 비즈니스(유치, 전략적 제휴) 재검토 ② 종합상사 등도 한국 진출 비즈니스에 참여 ③ 일본의 부품 공동화, 대체 조달에 대응 ④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관행 개선

4. 제3국 공동진출(플랜트, 자원개발) 방안

- 양국 기업협력에 의한 신사업 분야 진출, 경쟁분야에서의 공통과제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 : 물(水)사업, 통신 플랫폼
- 한일 양국의 연계 지원체제 구축방안
 - 전략적 한일협력 기반 맵(Map) 작성에 대한 상호협약을 통하여, 가칭 ‘한일산업협력위원회’와 ‘협력프로젝트 심사협의회’의 상설기구 설치
- 미래지향적인 한일협력을 위한 정부역할
 -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국정부 지도자의 정치적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함

- 공존공영의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통해 공존공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
- 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양국정부가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
- 중국의 급부상과 위협에 대비한 양국의 공동 대응

5. 한일 산업기술 교류의 대응 자세 - 새로운 서플라인 체인 구축과 활성화

- 방한미션(한국부품소재공단 시찰에 의한 일본기업의 대한 직접투자 촉진)
- 한일부품소재조달 상담회(한일 역견본시) 개최 : 산업간 교류 촉진
- 제17회 한일중소기업 상담회 개최(비즈니스 상담기회의 場 제공)
- 지역간 교류 활성화
- 지역간 교류사업(한일의료·요양보호 기술교류)

6. 전 제조업 분야 등 산업인재교류 활성화 방안

- 상호 우수 퇴직 기술자·경영자교류 네트워크 운영 : 생산효율성 제고
- 상호 글로벌 전문인력 Innovation Pool 구축 : 글로벌 인재활용
- 상호 산업인재 Management System 운영 : 비즈니스 모델 구축

7. 대지진 1년 후의 경과와 한일축제한마당

- 3월 11일 이후 국내외의 지원사항
- 모금액 : 국내 4,400억엔, 국외 175억엔
- 복구를 위한 문제점
- 복구비용(10년간) : 23조엔
-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에 정지한 원전 : 34기
- 피해지 쓰레기 : 2,252만 8,000톤(쓰레기처리 진척률 : 6.3%)
- 정부의 대응
- 복구예산 : 5년간 19조엔
- 2012 한일 축제한마당 개최 : 2012년 9월 29일~10월 2일

8. 한일 고령자 케어 전문자격제도의 표준화

- 아시아 사회의 빠른 고령화 추세에 따른 심각한 요양보호 문제에 대해 공통의 대응이 가능
- 양국 간의 요양보호 표준화는 단일국의 개념에서 근거한 세계적인 개념구축의 초석이 됨
- 국제적인 요양보호자격제도의 창설은 우수한 청년인재육성의 계기가 됨
- 양국의 요양보호 수요에 대한 대응 이외에도 요양보호는, 의료처럼 커다란 서비스산업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니즈를 신속히 간파하여 대응하는 것이 향후 세계화 전략 추진에 있어서도 커다란 메리트가 됨

9. 신성장 산업 분야 R&D네트워크에서의 한일협력

- 한국과 일본의 R&D 협력은 기본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 동북아 3국의 산업 경쟁력과 국제 분업구조를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함
- ‘친환경 녹색기술’ 분야이면서, 동북아 3국간의 산업경쟁력 관계에서 한국과 일본의 양국간 R&D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태양광이 대표적인
- 한일 R&D협력 5대 추진과제 제언
- ① 한·일 신소재 공동개발 연구추진 ② 한·일 녹색기술 공동개발 협력추진
- ③ 한·일 측정 표준 관련 협력 체계 구축 ④ 한·일 지식재산권 관련 협력체계 구축
- ⑤ 한·일 R&D 협력 플랫폼 구축

제18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개최

우리 협회는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18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를 지난 1월 31일(화)~2월 4일(토) 일본 오사카 코스모스퀘어 국제교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 캠프는 ‘한일 청소년교류 사업’의 일환으로써 한일 관계의 차세대를 짚어질 청소년들의 교류 확대를 위하여 2004년 1월부터 매년 2회 개최하고 있다.

한국측에서 34개교 50명, 일본측에서 32개교 50명, 합계 한일 양국 66개교 100명의 고등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캠프의 사업발표회에서는 노인복지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교류학교 나라라(習樂)’라는 사업명으로 노인들의 취미활동, 학습활동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에 관한 사업을 발표한 7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주부, 어린이,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레시피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한 5팀은

심사위원 특별상을, 전자파 차단 및 열에너지 재이용 할 수 있게 하는 제품을 발표한 6팀은 팀워크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포인트카드 통합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프로젝트를 발표한 3팀이 인기상을 수상하였다.

심사위원들은 한일 학생이 하나가 되어 실효성 있는 사업이 나온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학생들이 힘을 합쳐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보고 한일이 힘을 합치면 엄청나게 발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신하였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이번 캠프 참가로 국제인으로서의 첫 스타트를 끊은 만큼, 앞으로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공헌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2006년 6월부터 한일고교생교류캠프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OB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이며 이들은 양국 학생들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제공과 미래 리더로서



의 자질과 역량 함양, 한일 양국 간의 상호
호혜적인 미래와 우호증진을 위해 KJSFF·
JKSFF(한일학생미래회의)를 구성하여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는 하반기에 한국에
서 제8회 한일학생미래회의를 개최할 예정
이다.



〈심사위원 : 좌측 두 번째부터, 오사카 한국교육원 송종석 원장, 한일경제협회 이종윤 부회장, 일한경제
협회 고레나가 카즈오 전무이사,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동북아시아과 노자키 도모카즈〉

제7회 한일경제협회 회원사 간담회 개최

우리 협회는 「제7회 한일경제협회 회원사 간담회」를 지난 3월 12일(월) 오후 14:30부터 COEX 318호에서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에는 우리협회 상임이사인 황호균(주)네이처 리퍼블릭 부회장을 비롯하여 회원사 및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회원사 등 49명이 참석하였다.

금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동일본 대지진 발생 1년 이후, 일본의 부흥정책이 한국기업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정성춘 연구위원으로부터 발표가 있었으며, 최근 일본 정부는 부흥기본법을 제정하고, 부흥특구 설치 규제완화 등 특례조치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비즈니스 기대 효과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1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는 방사능 오염 등의 우려로 복구 작업을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흥특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특히 건설·토목분야는 진출 요건도 까다로워 직접적인 수혜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일본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주목하면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기업의 진출 전략을 적극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본 진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



분석과 피해복구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내겠다는 생각보다는 지역 주민, 대학, 기업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며, 사업과 연계된 주제에 대해 피해지역의 거점대학과 공동연구 등 무상의 인력 파견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 기술 획득과 제3국 진출을 위한 파트너 물색 등 협력분야 개척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협력분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피해지역 복구상황 정보 수집을 위한 거점을 확보하여 IT기술자 등 기술인력 파견을 통한 지원, 피해지역 청소년 초청, 스포츠, 문화교류 추진, 피해지역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일본 외무성의 ‘키즈나(인연) 강화 프로젝트’에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강연은 ‘스티브 잡스’를 직접 번역한 안진환 사장으로부터 스티브 잡스의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있었다. 세계 최고 기업 애플의 설립자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을 통해, 스티브 잡스 경영혁신의 배경과 원리를 이해하고 무한 경쟁시대의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며,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기업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 즉 통찰력을 가져야하며, 새로운 것에 대해 과감히 투자하고 도전하는 혁신성과 창의성의 중요함이 제시되었다. 새로운 상품 개발을 통해 기존 시장의 창조적 파괴(발전)를 이끌어내는 것이 진정한 기업가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협회는 회원서비스의 일환으로 ‘회원사 간담회’를 통해 한일관계에 저명한 국내외 인사의 초청 강연 및 정보 제공, 협회사업 안내, 회원사의 요망사항 모니터링 등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회원사의 의견을 적극 청취·반영하여 보다 유익하고 발전된 회원사 간담회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주한일본대사 초청 오찬간담회

우리 협회 회장단과 주한일본대사관과의 정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경제교류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주한일본대사 초청 오찬간담회가 지난 3월 15일(목) 조석래 회장의 주재로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우리협회 회장단에서는 조석래(趙錫來) 회장(효성 회장), 서민석(徐敏錫) 부회장(동일방직 회장), 김희용 부회장(동양물산기업 회장), 우석형(禹石亨) 부회장(신도리코 회장), 김윤(金鈞) 부회장(삼양홀딩스 회장), 하영봉(河英鳳) 부회장(LG상사 대표이사 사장), 백경목(白慶穆) 부회장(대한제당 부회장), 강호문(姜皓文) 부회장(삼성전자 부회장), 황호균(黃昊均) 상임이사(Nature Republic 부회장), 손봉락(孫鳳洛) 상임이사(TCC동양

회장), 이일규(李一揆) 상임이사(Best Western Korea 회장), 박인구(朴仁求) 상임이사(동원그룹 부회장), 윤종규(尹鐘圭) 상임이사(KB금융지주 부사장), 이종윤(李鐘允)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등 14명이 참석하였고, 주한일본대사관측에서는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대사, 구라이 다카시(倉井高志) 총괄공사, 우야마 도모치카(宇山智哉) 경제공사,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정치공사, 아라이 유스케(新居雄介) 총무공사참서관 등 5명이 참석하여 한일 양국 간의 협력 분위기 조성 및 경제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의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협회 회장단을 대표하여 조석래 회장은 지난해 일본을 뒤흔든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1년이 되어 여러모로 바뀐 실 텐데도 새로운 공사님들과 함께 많



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환영을 표하고, 동일본대지진 재해를 극복하고 복구에 박차를 가하여 안정감을 되찾아 가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다행스럽고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로 돌아가기를 기원하였다.

그리고 작년 후반부까지 미국과 유럽 등의 세계경제가 불투명하였으나 현재는 좋은 분위기로 전환되어가고 있고, 한일 간의 무역이나 투자도 확대되고, 엔고 또한 약세로 전환되어 일본경제도 안정화 되어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 간의 교류가 늘어나고 있는 등 진정으로 가까운 이웃관계가 확산되어가고 있으므로 이제는 우리 협회와 경제인들은 한일 간 FTA를 빨리 성사하여 발표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노력해야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무토 대사는 금번 대사관에서 새로운 멤버(신임공사)로 팀을 구성하여 한일 경제관계에 더욱 더 힘쓰겠다고 하면서, 어제 동일본대지진 1주년 행사를 대사관저에서 가졌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지진피해에 대한 위로와 일본경제의 회복에 용기를 북돋아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한편, 복구부흥 계획을 8년 이상으로 세우

고, 복구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그러나 생산라인은 상상이상으로 회복되어 한국과의 경제관계가 강화되고 있고, 엔화 대비 달러의 환율이 84엔대까지 떨어지고, 주식시장도 금년 3월의 평가이익에 대한 결산이 기대되며, 또 지진 복구예산 19조 엔도 본격 투입되어 일본경제가 서서히 상승해 갈것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피력하였다.

또한, 한일 간의 산업협력 투자가 매일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방영되고 있다. 작년은 재작년에 비해 일본에서 한국에 투자한 금액이 두 배 이상이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한류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2사 중 1사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러한 한류붐을 통해서 한일 FTA체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한일경제협회의 조석래 회장님과 일한경제협회의 사사키 회장님의 주도 하에 서로 Win-Win하는 관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주한일본대사 주최 만찬간담회 개최

지난 4월 23일(월), 무토 마사토시(武藤 正敏) 주한일본대사 주최로 우리협회 회장단과의 부부동반 만찬간담회가 주한일본대사관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협회 회장단에서는 조석래 회장(효성 회장 부부), 이윤우 고문(삼성전자 상임고문), 김 윤 부회장(삼양사 회장 부부), 하영봉 부회장(LG상사 사장), 강호문 부회장(삼성전자 부회장), 황호균 상임이사(네이처리퍼블릭 부회장), 이일규 상임이사(베스트웨스턴코리아 회장 부부), 정영현 상임이사(천마 고문 부부), 이수철 상임이사(캠크로스 인터내셔널 회장 부부), 정수용 상임이사(빙그레 부회장), 윤종규 상임이사(KB금

융지주 부사장 부부),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과 조덕묘 사무국장 등 21명이 참석하였고, 주한일본대사관측에서는 무토 마사토시(武藤 正敏) 대사 부부, 미치가미 히사시(道上 尚史) 공보문화원장, 우야마 도모치카(宇山 智哉) 경제공사 부부,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정치공사 부부, 오사와 요시유키(大澤 慶幸) 참사관, 와타나베 타카시(渡辺 隆史) 경제부 참사관 부부, 우에하라 켄야(上原 研也) 경제부 1등서기관, 야마고 다카히로(山後 貴弘) 경제부 2등서기관 부부 등 14명이 참석하였다.

만찬간담회에서는, 무토 대사의 환영사와 조석래 회장의 답사를 통해, 오는 5월 16일~17일





에 걸쳐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제44회 한일 경제인회의에 많은 경제인과 부인들이 참석하여 한일 간의 협력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자는데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한일 FTA의 조기체결을 위해 양국이 노력하여, 한중일 FTA 또는 한중 FTA 보다 먼저 한일 FTA 체결을 성사시키

자는 결의를 다졌다. 또한, 오는 9월 29일~10월 2일에 개최되는 한일축제한마당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LCC항공(저비용 항공사) 취항에 따른 한일 간 교류 확대 등 한일 양국 간의 경제협력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²⁾



주한일본대사 초청 친선골프

우리 협회는 지난 6월 9일(토) 한일 양국의 상호이해와 친선증진을 위해 주한일본대사를 초청하여 친선교류활동을 송추C.C.에서 가졌다.

한국 측에서는 조석래(趙錫來) 회장, 김윤(金鈞) 부회장, 문규영(文圭榮) 상임이사, 황호균(黃昊均) 상임이사, 이일규(李一揆) 상임이사, 정수용(鄭秀溶) 상임이사, 이종운(李鐘允) 상근부회장 등 회장단 13명(부부동반)이 참석하였고, 일본 측에서는 무토 마사토시(武藤 正敏) 주한일본대사, 미치가미 히사시(道

上 尚史) 일본문화공보원장(공사), 우야마 토모치카(宇山 智哉) 경제공사 등 3명이 참석하였다.

친선활동에 이어 열린 오찬교류회에서는 한중일 FTA, 한일 FTA, 일본기업의 한국진출 확대, 기술표준화, 인재파견, 한일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교환이 있었다.

한편, 이날 ‘대한제당’의 회원대우·진행 협력이 있었고, ‘한국콜마’에서 장영실상을 수상한 기능성 화장품의 협찬이 있었다.☞



제19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개최안내

우리협회는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차 세대를 짚어질 청소년들의 교류확대를 위해 2004년 1월부터 매년 2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한일고교생교류캠프」를 개최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청과 일본 국토교통성, 주한일본대사관에서 후원하는 금번 제19회 캠프는 2012년 7월 24일(화)부터 7월 28일(토)까지 4박 5일간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한일 양국에서 참가한 100명(한국 측 50명, 일본 측 50명)의 고교생들이 혼성 10개 팀으로 구성, 4박5일간 합숙하면서 양국의 관광·문화 등의 상품에 대한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발표하는 경제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캠프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 함양과 창업교육을 통한 비즈니스 마인드와 창업 정신을 고취시키는 한편, 이러한 공동 작업을 통해 국경을 넘어 같은 세대의

젊은이들이 진정한 우정을 쌓음으로써 향후 국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네트워크 구축 및 한일 청소년들 간의 이해증진을 통해 우호관계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7월 27일(금)에는 한일 학생들이 공동작업(서울 시내 시장조사 및 사업전략 기획)을 통해 준비한 기획을 선보이는 ‘사업발표회’가 개최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는 사업발표회는 회원사, 소속 고등학교, 언론사 등 관계기관에서도 참관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참관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전의 발표회가 끝나면 오찬도 제공된다.☞

※ 사업발표회에 참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7월 20일(금)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문의처 : 한수아 사원/02-3014-9888 홍소영 대리/02-3014-9881)



제12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안내

—장쑤성(江蘇省) 련윈강시(連雲港)—

한국 지식경제부와 중국 상무부, 일본경제산업성 규슈경제산업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2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가 2012년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장쑤성(江蘇省) 련윈강시(連雲港)에서 개최된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한, 중, 일

삼국 정부가 2000년에 만든 정부간 중요한 3국 지역협력체제로 3국 환황해 지역내 무역, 투자,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강화와 개방형 환황해경제권 형성, 공동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12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요■

일시	2012년 9월 18일(화) ~ 21일(금)
장소	○ 메인 회의장 : Riviera International Hotel (連雲港蔚藍海岸國際大酒店) ○ 서브 회의장 : 셴저우 호텔 (Shenzhou Hotel 神州賓館)
주최	○ 한국측 - 지식경제부 ○ 중국측 - 상무부 ○ 일본측 - 경제산업성 규슈경제산업국
주관	(사)한일경제협회
규모	약 300명(한·중·일 각각 약100명)
주요내용	○ 한·중·일 경제 교류 확대와 녹색경제 발전의 공동 추진 - 고위급 회담 합의사항을 실천하고 역내 해륙복합운송 협력을 강화하며, 순환경제발전에 주력하고,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통합 촉진

■ 주요일정

날짜	주요 활동 사항
9/18(화)	상무부 및 장쑤성 인민정부 환영 만찬 한중일 환황해 3국 실무협의
9/19(수)	환황해회의 개막식
	지방특색전시회 개막식 참관
	환황해 비즈니스 포럼
	환황해 항만교통물류 경제협력포럼
	환황해 산학관 대학총장포럼
	한중일 환황해 3국 국장회의
	산업시찰 1 련윈강시투자환경설명회 및 련윈강시 인민정부 초대만찬
9/20(목)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전체회의 산업시찰 2

※ 참가문의 : 홍소영 대리 02-3014-9881

제13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최안내

-일본 후쿠이현(福井縣)-

우리나라 동해안 4개 자치단체『대구·울산·강원·경북』와 일본 호쿠리쿠 『北陸3縣 : 토야마(富山), 이시카와(石川), 후쿠이(福井)』지역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제11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가 2012년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일본 후쿠이현(福井縣)에서 개최된다.

양국 간 산업 협력을 위해 2000년부터 매년 양국이 교차하면서 개최하고 있는 본 회의는 한국과 일본의 지역별 산업군 매칭 강화를 목적으로 한일 양국의 지역·기관·기업 간의 상호 진출 성공사례 및 애로점,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13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요■		
일 시	2012년 10월 17일(수) ~ 20일(토)	
장 소	후쿠이현 후쿠이후지타호텔 / 후쿠이산업회관	
규 모	약 100명(한국측 / 약40명, 일본측 약 60명)	
주 관	(사)한일경제협회	
주요내용	1부 (세미나)	‘지역·기업·기관’ 간 교류협력 사례 발표, 산업관련 정책 및 기업지원책 발표 및 한일 양국 지역간·기관간·기업 간 상호 진출 성공사례 및 애로점, 개선 방안 등 논의
	2부 (전문분과회)	- 의료융복합[의약바이오, 의료기기, 의료관광 등], 환경산업, 물류 분야의 교류 촉진

■ 주요일정

날짜	주요 활동 사항
10/17 (수)	제13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일본측 주최 환영 만찬
10/18 (목)	□ 대표단 - 전문분과회 : 「의료융복합·환경산업·물류」 - 전시회 시찰, 개별상담
10/19 (금)	□ 전시회 출품기업 - 2012후쿠이 테크노페어 출품 □ 대표단 - 옵션 프로그램 - 산업·문화시설 시찰 □ 전시회 출품기업 - 2012후쿠이 테크노페어 출품

※ 참가문의 : 홍소영 대리 02-3014-9881

제19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개최안내

—가고시마현 이부스키시(指宿市)—

2012년 11월 7일 부터 9일까지 ‘제19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가 일본 큐슈(九州)에서 개최된다.

본회의는 한국과 일본 큐슈지역의 지자체·경제단체·기업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쌍방의 자본, 기술, 인재 등의 지역자원을 상호보완하여 「무역, 투자 및 산업기술의 교류확대」와 「지역 간 교류촉진」을 목적으로 양국이 매년 교대로 개최해 오고 있다.

작년 11월에 개최되었던 제18회 회의(대전광역시)에서는 공동발표문에 근거하여 한일 분야별(환경·IT·인재 등)「경제교류 촉진·비즈니스 교류 촉진·지역 간 경제교류의 적극적 지원」등 3개 의제, 총 25개 협력사업(한국측제안: 9개, 일본측: 16개)에 대해 양국 정부 및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해, 한일 양측이 이 사업의 실시에도 공동으로 임하고 있다.☞

■ 제19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개요 ■

일 시	2012년 11월 7일(수) ~ 9일(금)	
장 소	가고시마현 이부스키시(指宿市)	
주 최	○ 한국측 - 지식경제부, (사)한일경제협회,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일본측 - 큐슈경제산업국, (사)큐슈경제연합회, (재)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큐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	
주요 내용	1부 (전문 분과회)	- 양국에서 사전에 선정한 테마(바이오, 환경 등)와 관련한 현황 파악과 협력방안(정부 건의사항, 협력요망사항, 장애요소 극복 방안 등) 모색,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에 대한 논의
	2부 (상담회)	- 개최지역의 특화된 산업군과 한국 지자체 또는 업종별 참가 희망기업(2개업종), 30사를 대상으로 일본기업과의 상담 실시

■ 주요일정

날 짜	주요 활동 사항
11/7 (수)	□ 산업시설 시찰 or 공장견학 □ 사전 실무협의
11/8 (목)	□ 본 회의 : 주최자 인사, 전체 회의 발표 - 지역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 발표 - 기업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 및 사례발표
	□ 한국측 주최 오찬 교류회
	□ 전문 분과회 - 업종별 단체·기업간 교류회 개최
	□ 비즈니스 상담회 - 부품소재분야
	□ 일본측 주최 환영 리셉션

※ 참가문의 : 홍소영 대리 02-3014-9881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의 한국측 개회사

(사)한일경제협회
회장 조 석 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代表的인 商業都市이자 오랜 歴史를 자랑하는 이곳 오사카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도시에서 韓日·日韓經濟人會議를 열어 왔었는데, 오사카에서는 왜 이번에 처음으로 會議를 열게 된 것인지 신기합니다.

오사카는 과거 朝鮮通信使가 일본에 들어오는 길목이었고, 現在도 韓國 同胞가 30만명이나 살고 있어, 한국과 因緣이 아주 깊은 곳입니다.

이처럼 由緒 깊은 오사카에서 한일 양국 기업인들이 만나 經濟協力과 友好親善을 위해 討論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代表團 一行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이번 會議를 성공적으로 開催하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사사키 미키오 회장님과 日韓經濟協會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貴重한 시간을 내어 祝辭를 해주실 오카다 히데이치 日本 經濟産業省 經濟産業審議官님과 신각수 駐日한국대사님, 그리고 이번 會議의 基調演說을

맡아주신 아소 타로 前 일본국 총리대신님과 한덕수 前 대한민국 국무총리님께도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韓日 經濟人 여러분, 올해 초 미국의 景氣指標가 호전되어 世界經濟가 나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최근 미국의 雇傭不安과 經濟成長率 하락 전망으로 景氣回復의 모멘텀이 鈍化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의 流動性 공급과 그리스 2次 救濟金融 執行 등으로 財政不安에 대한 憂慮가 解消되는 듯하다가, 지난 6일에 있었던 프랑스 대통령 選舉와 그리스 議會選舉 결과, 執權與黨이 패배함으로써 緊縮政策과 構造改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財政危機에 대한 不安感이 또 다시 높아지고 글로벌 증시에도 부정적인 影響을 끼치고 있습니다.

韓國經濟도 작년 下半年 이후 부진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듯하였으나, 유로지역 景氣沈滯의 영향으로 輸出 增加勢가 둔화되고 있고 第一 큰 市場인 중국 輸出마저 줄어들기 시작하여 貿易收支 黑字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한일 양국 간의 貿

易은 작년에 史上 최초로 1천억불을 넘어섰고, 兩國을 오가는 訪問客들도 연 5백만 명을 넘는 등 양국 간의 交流는 이전보다 活潑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韓流문화가 큰 人氣를 끌고 있어 카라 등 한국 가수들의 公演이 연일 賣盡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好感을 느껴서인지, 한국에서도 일본을 가깝게 여기는 젊은이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에는 일본이 朝鮮王室 儀軌를 한국에 返還했는데, 이는 우리 두 나라 사이의 和解와 協力을 象徵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事例라고 생각합니다.

經濟人 여러분, 이번 세계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아시아 국가들은 그동안 歐美市場으로의 輸出을 통해 經濟成長을 이루었던 成長모델을 더 이상 持續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域內交易을 늘리고 內需를 키워 아시아가 세계경제의 成長軸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시아 國家들도 EU와 같은 經濟統合을 함으로써 하나의 거대한 市場을 만들어 持續적이고 安定的인 성장을 確保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오래도록 推進되어오던 한일 FTA는 지금 停滯狀態에 빠져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과 중국은 지난 5월 2일 베이징에서 양국의 通商長官들이 만나 韓中 FTA 協商을 시작하기로 合意하였고, 13일에는 한중일 頂上이 만나 年內에 한중일 FTA 협상을 시작하자는 合意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국은 오래전부터 한국과 일본에 대해 FTA를 推進하자고 적극적인 姿勢를 보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중국이 맺은 뉴질랜드나 싱가포르와의 FTA를 보면, 중국이 하고자 하는 FTA는 敏感한 품목을 除外시키거나 自由化의 速度를 늦추는 등 ‘낮은 수준의 FTA’가 될 可能性이 높습니다.

이렇게 ‘낮은 수준의 FTA’가 아시아 경제통합의 標準으로 자리잡게 된다면, 아시아는 EU와 같은 ‘높은 수준의’ 經濟統合을 해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시아도 EU처럼 成功하려면, 한일 양국이 水準 높은 FTA를 먼저 締結하고, 이를 아시아 市場統合의 모델로 삼아 아시아 모든 나라가 함께 參加하는 統合된 거대 市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 정부가 農産物 시장 개방과 非關稅障壁을 어떻게 허물지를 뚜렷이 제시하지 않고 있어 한일 FTA의 實益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協商에 쉽게 응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니혼게이지사이新聞은 “한국이 중국을 FTA 協商對象으로 택한 것은 일본이 말로만 하자고 했을 뿐 行動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 이라고 報道한 바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좀더 積極적인 행동으로 나서고, 한국정부도 그에 相應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아시아 全體의 未來를 위한다’는 大局적인 觀點에서 讓步할 것은 과감히 讓步하면서 한일 FTA를 빨리 成事시킬 것을 促求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야 아시아가 미국·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경제의 中心이 되어 成

長을 이끄는 중추役割을 할 것입니다.

韓日 經濟人 여러분, 아까 사사키 회장님께서 한일고교생 상호방문을 위한 고교생 교류캠프를 運營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 韓日經濟協會에서도 적극적으로 推進하고 있는데 아주 효과 있는 事業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사업이 계속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사키 회장님이 말씀하신 여수박람회에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에는 서울에서 <제4회 韓日 部品素材 調達供給 商談會>가 열릴 예정입니다.

2009년부터 매년 열려온 이 전시회는 자동차, 전기전자, 금속가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部品供給을 원하는 일본기업들과 技術力 있는 한국의 中小企業들을 1대 1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맺어주는 ‘逆見本市’입니다.

사전에 구매조건정보를 提供하고 한국기업들의 生産現場을 視察할 수 있어 비즈니스

스 成事가 더 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商談會에 많은 기업들이 參與해 서로 Win-Win하는 關係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일 경제인 여러분

세계 경제의 앞날이 不透明한 상황에서, 우리 양국 경제인 간의 協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처럼 우리 한일 경제인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 一心 協力하여 양국의 共同繁榮을 위해 努力해나갔으면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를 통해 한일 간 經濟 協力에 대한 實質的인 論意가 풍부하게 이루어져 한일 두 나라가 굳건한 信賴와 友愛를 바탕으로 긴밀히 協助해나가기를 希望합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參席해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感謝드리며, 이상으로 제 인사말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일본측 개회사

(사)일한경제협회

회장 사사키 미키오(佐々木 幹夫)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님, 신각수 주
일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님, 조석래 한일경
제협회 회장님, 한국 측 참석자 여러분, 그
리고 아소 타로 전 내각총리대신님, 오카다
히데이치 경제산업심의관님, 후쿠가와 신지
일한파트너십포럼 좌장님, 그리고 일본측
참석자 여러분. 일한경제협회 회장과 일한
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
사키 미키오입니다. 오늘은 다망하신 가운
데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
니다. 개회에 즈음하여 일본 측을 대표해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올해로 44회를 맞이합
니다. 그런데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
번이 처음입니다.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관
서지방은 재일동포 여러분들이 많은 지역
이고 역사적으로도 한국과 인연이 깊은 지
역입니다. 본 한일경제인회의를 계기로 관
서지방과 한국과의 교류가 더욱 더 심화,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지
금도 3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대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지역에서는 하루라도
빠른 복구와 부흥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분들께서는 지진발생
직후에 구조대와 구조건을 파견해 주시고
거국적으로 따뜻하고 폭넓은 지원을 해주
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3월 11일자 아사히신문을 보면, 이
명박 대통령의 기고문이 게재되었는데, 「3월
11일 대지진과 한일관계, 깊은 우정과 유대
의 재확인」이라는 기고문입니다.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의 벗이 참된 벗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일
양국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따뜻한 이웃이
다. 이와 같은 선린우호관계를 토대로 21세
기의 성숙한 파트너십을 함께 키워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이명박 대통령의 따뜻한
가슴이 느껴져서 감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향후 양국관계의 키워드를 나타
내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세계경제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여러 주
요국가에서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유럽경제는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신흥국가들의 성장도 둔화되고 있는 것 같
습니다. 중동정세는 여전히 예측불허의 상
태이고, 북한관련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

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일수록 한일 두 나라가 미래지향적인 원원의 관계를 맺고 연대를 강화하여 강력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는 한일 양국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양국경제의 번영과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또 동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안정축이 되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어받아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하는 자리가 바로 이번 한일경제인회의입니다. 여러분들의 솔직하고 기탄없는 논의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번 주제와 관련해 다음 4가지의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FTA(EPA) 문제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튼튼한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더욱 더 번영하기 위하여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시다만, 이것을 강력하게 서포트하기 위해서라도 FTA 체결이 불가결합니다. 따라서 양국 정부에게 다시 한 번 조기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며칠 전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상호무역투자협정이 체결되었고, 또 3국간 FTA의 연내협상 개시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기쁜 일이며 앞으로의 진전 상황을 기대하며 주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와 병행해 한국과 중국은 양자간 FTA 체결을 향한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의 FTA/EPA에 대해서도 가

급적 조기에 협상이 재개되기를 양국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일본과 한국 간의 연대를 통한 글로벌 전개에 대해서입니다. 한일 두 나라가 서로 공조해서 금속자원 혹은 에너지 자원을 제3국에서 공동개발하고 공동확보하는 움직임이 해마다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강력히 밀어주기 위해서 일본국제협력은행, 일본무역보험, 한국개발은행 등 정부기관들의 제도금융을 통한 서포트를 기대하며, 또 민간금융기관도 앞으로 계속 폭넓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나라의 높은 기술력을 배경으로 한 인프라 수출, ODA나 CS활동과 접목시킨 복합 프로젝트를 늘리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프로젝트는 인재양성의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프로젝트 현장에 두 나라의 젊은 인력들을 파견하여 자원개발, 혹은 경영의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본 양국의 경쟁력 강화, 종합능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양국 간 인재교류입니다. 저희들은 한일경제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협력해 차세대를 짊어질 보배라고 할 수 있는 두 나라의 젊은이들, 청소년들의 교류와 육성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 고교생교류 캠프사업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생, 사회인이 된 이후에도 자율적으로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24일부터 5일 간 서울에서 제19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사업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 양국의 이공계대학원 학생들이 각각 일본과 한국에 약 2개월 동안 체제하

면서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수준 높은 연수를 받는 프로젝트도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교류와 육성의 場을 마련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양국 간 관계구축에 기여 하리라 확신하며 앞으로도 지속해 가고자 합니다. 두 나라 정부에서도 우리들의 이러한 정신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지원 등의 폭 넓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경제의 범위를 넘은 풀뿌리차원의 양국 간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9월에서 10월까지 서울시와 동경도에서 한일축제 한마당이 개최됩니다. 저도 작년부터 일본 측의 실행위원장을 맡아 미력하나마 돕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일 양국의 유대」라는 것이 키워드였습니다. 올해의 키워드는 대지

진을 극복하여 전진하고 새롭게 도약한다는 의미에서 「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시민차원의 교류는 대단히 중요하며 저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해 갈 생각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지난주에 여수세계박람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6월 2일 재팬테이의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2014년에는 인천아시안게임, 2018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국제행사들이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웃 나라인 일본 입장에서도 대단히 기쁜 일이며 그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사카에서의 이틀 동안의 회의가 양국의 파트너십 강화로 이어지는 알차고 유익한 회의가 되기를 기원하며 저의 개회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㉞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 한국측 기조연설

한국무역협회장 / 전 국무총리
한 덕 수



1. 인사말 및 동일본 대지진 위로

존경하는 일한경제협회 사사키 미키오 회장님, 한일경제협회 조석래 회장님, 아소 타로 전 총리님, 그리고 한일 양국의 귀빈 여러분을 모시고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3.11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위로를 드립니다. 엄청난 재난 앞에서 굴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해온 일본 국민의 시민 의식과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 국민도 인접국 일본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면서 전 국민의 31.9%가 이재민을 돕기 위한 기부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이는 양국 국민이 국경을 넘은

상호 간의 깊은 우정과 유대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일본이 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고 일본 국민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과거-현재의 한일 경제협력관계 조명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경쟁과 협력을 통해 상승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및 세계의 경제발전과 평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일본의 대(對)한국 투자액은 1965년에 5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23.0억 달러로 확대되어 외국인투자로서는 2위 투자국이 되었습니다. 나아가서는 금년도 1분기의 일본의 대한국 투자는 9.2억 달러로 전체의 39.2%를 차지하여 2010년에 이어 제1위 투자국으로 재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국에 투자해 주신 일본 기업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국 간 총 무역액도 1965년 2.2억 달러에서 2011년에는 1,08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일본은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 3위국, 수입 2위국의 무역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도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투자 자유화 증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2003년

에 ‘한일투자협정’이 발효되어 한일 양국민은 상대국에 투자할 때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투자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국 금융시스템의 단기유동성을 개선하고 한일 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2005년에 130억 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스와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700억 달러로 규모가 확대되어 양국의 외환 유동성을 둘러싼 불안감은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양국 간의 투자, 무역, 금융 분야 등에서의 경제협력은 한국경제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최근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JX닛코닛세키에너지와 SK종합화학(‘11.11), 미쓰비시화학·미쓰비시상사와 포스코켄텍(‘11.9)이 합작회사 설립에 합의하였으며, 스미토모화학(‘11.5)은 약 190억 엔을 투자해 터치패널을 삼성에 공급하기로 하는 등 바람직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한일 간 협력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2009년 대(對)아프가니스탄 농업개발사업을 공동 지원하였고, 2010년 아이티 대지진 참사 때에는 긴급복구팀을 파견하여 이재민들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2011년부터 녹색성장을 위해 호주가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CO2 지중저장 오토웨이(Otway)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측면의 한일 민간 교류관계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것이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입니다. 성공적인 월드컵 공동개최

는 양국 국민 간에 상호신뢰와 깊은 우정을 싹트게 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한류 열풍이 뜨겁습니다. 드라마와 K-POP을 통하여 윤사마(배용준), 보아, 카라, 소녀시대, 동방신기, 근사마(장근석) 등이 한류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식문화가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와쇼쿠(일식)’로 대표되는 스시를 비롯해 사케, 우동, 라멘 등은 한국인이 즐겨 찾는 음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 상권은 많은 일식 가게들이 차지해 ‘little Shinsaibashi’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일 양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에서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2011년 일본인의 한국인 호감도 조사에서는 62.2%가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여 2009년의 63.1%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동년 한국인의 일본인 호감도 조사에서도 40.5%를 기록하여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었습니다. 2009년 한국 방문 일본 관광객 수는 300만 명을 돌파하였고, 2010년 양국 교류인원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무르익은 양국 간 협력 분위기를 새로운 미래지향적 한일 파트너십 정립으로 이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 국제여건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

지금 세계경제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이어져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

되고 있습니다. 호황을 누리던 개발도상국의 성장도 둔화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유가, 식량,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세계경제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각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과 일본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한일 양국은 당면한 세계경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동아시아 경제발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글로벌화’의 진행으로 경제통합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유럽연합(EU), 북미자유협정(NAFTA), 아시아 등 3개의 경제권 구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일본의 선진화된 경제, 중국의 고도성장 등에 힘입어 경제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한중일 3개국 GDP는 전 세계의 21.9%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경제는 대지진의 충격에서 깨어나 생산, 투자, 고용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화의 약세로 자동차 빅3(토요타, 혼다, 닛산)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대지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금년도 대기업 제조업의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3.6%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도레이(Toray)는 내년 1월 가동 예정인 한국의 탄소섬유 공장의 가동을 앞당길 수 없는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한국과 미국, 일본에 총 450억 엔을 투자하여 생산

능력을 증대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금년 고용이 60%나 증가하는 등 성장을 위한 투자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경제의 빠른 회복은 향후 동아시아의 역동성을 더욱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경제부진이 예견되는 가운데 동아시아는 세계경제를 견인할 성장엔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적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선진적인 시장경제제도를 가지고 있는 한일 양국이 개도국에 전파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동아시아의 경제지형 변화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무역 지형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일 간 무역 규모의 절대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총 무역액에서 상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일 수출은 1990년 126.4억 달러에서 2011년 396.8억 달러로 3.1배 늘어났으며, 일본의 대한국 수출 역시 같은 해 185.6억 달러에서 683.2억 달러로 3.7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한일 양국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경제 상호 의존도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일 무역 비중은 1990년 23.1%에서 2011년 10.1%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으며, 일본의 대한국 비중도 5.6%에서 6.3%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

는 양국 모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동아시아가 세계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주변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 동북아 시대를 맞이하고 중국이 세계 변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3개국의 공동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중국의 투자 및 지적재산권 제도, 유통구조의 정비 등의 시장경제화의 축진을 위해서 향후 한일 협력관계는 더욱 큰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4. ‘한일 신(新)협력 시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 패턴은 과거 양적 확대에서 이제는 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인적교류, 문화교류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한일 신(新)협력 시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보다 수준 높은 한일 간 협력을 위해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한일 FTA

세계 주요국들은 협력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FTA 협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2004년 이후 중단된 한일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일 FTA는 양국 간 ‘미래 파트너십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규모의

경제 달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산업 구조 조정 촉진, 제3국 시장에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서 한일 FTA 추진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협상 전망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한국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부문의 대일 무역역조 확대를 우려하고 있고, 일본은 농산물 시장의 수준 높은 자유화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 FTA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양국이 이익의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합니다. 2010년 일본의 비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2.5%로 한국의 6.6%에 비해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철강, 전자 등은 이미 무관세 수준에 가깝습니다.

한일 FTA가 양국 간 Win-Win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일본은 농산물 시장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철폐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관세 철폐에 따른 걱정보다는 기술력이 경쟁력을 결정하게 되는 부품소재 부문에 대해 일본과의 투자협력, 기술이전 등 포괄적인 산업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구축을 실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가진 ‘FTA 허브 국가’로서 자리매김 했습니다. 2012년 5월 현재 미국, EU 등 8건의 FTA를 통해 총 45개 국가와 무역자유화를 실현하였으며, 7개 국가·지역과 타결했거나 협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본이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한국은 일본의 세계시장 확대를 위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끼는 한 평의 풀밭을 필요로 하지만 사자는 광야로 나가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듯이’ 한국과 일본도 더 넓은 세계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일 FTA를 지렛대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 대일 무역역조 개선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액은 2010년 361억 달러를 정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에는 397억 달러를 수출하고 683억 달러를 수입하여 전년 대비 75억 달러가 개선된 28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대일 무역적자가 전년 대비 20.7%나 감소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한국의 대(對)세계 수출 부진이 대일 수입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대일 무역적자가 감소(한국의 수출부진 → 국내투자 위축 → 대일 수입 감소 → 대일 무역적자 감소)하는 패턴과 달리, 일본의 쓰나미 등 불행한 사태의 여파도 있었지만 2011년 대일 수출이 전년 대비 40.8%나 증가한 것이 전체 무역적자를 감소시킨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양국 간 무역불균형은 인위적인 노력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의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대일 무역역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은 한국 상품의 일본시장 진출을 위한 관세, 비관세 장애물을 제거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더불어 그 동안 미흡했던 일본의 한국 부품소재 구매와 일본 부

품소재 관련기업의 한국 진출이 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안정적 공급을 위한 Supply Chain 확대

동일본 대지진과 태국 홍수 사태로 일본 제조업을 뒷받침 해온 서플라이 체인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핵심 부품소재 공급이 중단되면서 일본기업은 물론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혼이 담긴 제조업을 의미하는 ‘모노쓰쿠리’ 분야에서 서플라이 체인의 어려움은 일본기업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산업계는 동일본 지진을 계기로 서플라이 체인 재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일본의 서플라이 체인 재구축 전략은 리스크 분산을 위한 서플라이 체인 복선화와 생산거점 분산화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이전에 따른 생산거점의 다변화와 현지조달체제인 지산지소(地産地消)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한일 협력,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현상일 것입니다.

일본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해 국내고용 감소, 기술이전에 따른 일본기업 경쟁력 약화, 산업공동화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내수시장 축소, 대지진 이후 전력문제, 엔고, 저렴한 노동력 확보 어려움 등을 고려한다면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은 향후에도 가속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기업의 해외이전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한국은 일본기업의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준 높은 노동력으로 인한 기술집약형산업 진출 여건 구비, 일본의 절반에 불과한 값싼 전기요금과 법인세, 부품소재 분야에서 한국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가능성 증대, 지리적으로 가까워 일본기업이 중요시 여기는 JIT(Just in Time)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은 많은 국가와의 FTA 체결로 인해 광활한 경제활동영역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총 GDP는 세계 전체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기업도 한국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확대된 한국의 경제영토 위에서 세계시장을 향한 기업활동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은 일본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위해 기업 투자환경 개선, 노사문화 선진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지식소유권 보호 강화, 조세감면 등의 투자 인센티브 확충 등에 대해서 일본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4. 신흥국 ‘볼륨 존(Volume Zone) 전략’의 한일 협력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수출지역 다변화와 지속적인 수요시장 확보를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국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 동안 고품질·고가적 전략으로 선진시장에 주력해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선진국의 경기 침체로 신흥국 중심의 글로벌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일본기업은 신흥국의 연간 가계 가처분소득이 5,000~3만 5,000 달러의 소득계층을 볼륨 존으로 정의하면서 이 시장에 집중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기업들이 저가적 혁신과 중저가 제품 출시를 통해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의 신흥국 시장 진출을 확대함에 따라 신흥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국기업과의 협력이 치열한 실정입니다.

한일 양국은 신흥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자동차, 가전, 공작기계 분야 등에서 과다한 출혈경쟁과 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성 제거를 위해 한일 간 경합구조에서 협력구조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이 ‘Win-Win형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흥국에서 한일 공동 차세대 제품 개발과 공동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대신흥국 공적개발 원조(ODA) 확대를 통해 신흥국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양국 기업이 공동 진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신흥국 경제발전을 위해 한일 양국의 경제개발 경험, 산업기술 등을 공동 전수 등을 통해 양국 기업의 비즈니스 협력 기회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흥국에서의 한일 간 경제협력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한국과 일본의 기업인 여러분들의 협력이 새로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5. 환경·에너지 분야, 제3국 자원개발 공동 진출을 위한 한일 협력

한일 양국은 해외 자원에 주로 의존하면

서 경제발전을 도모해 온 국가로서 환경, 에너지, 자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며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야 할 필요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적극적인 환경 정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온실 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급속한 산업화의 진행으로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 되었습니다. 한일 양국은 환경 분야에서 한중일 3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에너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술개발의 촉진과 국제적 보급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특히 한중일 간의 원자력 안전강화를 위한 협력이 시급합니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개발을 위해 양국 간 기술협력도 필요합니다. 하이브리드 카나 전기 자동차, 클린 기술의 개발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의 공동 R&D를 통해 세계 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제3국에서 자원 확보를 위한 한일 간 협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미쓰비시상사가 인도네시아에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합의했으며('11.1), 포스코와 신닛테츠가 브라질 희귀금속인 니오븀 광산에 약 2조원을 공동출자('11.3)했고, 한국전력과 스미토모가 아랍에미리트(UAE)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공동 수주('11.2)하는 등 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화석연료를 대상으로 제3국

공동 진출이 활발했으나 향후에는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등 BRICs 국가에서의 IT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스마트시티 전환 프로젝트에 공동 진출하는 것과 신흥국의 그린 에너지 기반 경제성장 도모를 위해 양국 산업계가 협력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에너지와 자원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에너지·자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더 수준 높은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6. 동일본 대지진 부흥을 위한 한일 협력)

일본정부는 2012년 3월 지진피해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외국기업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개방된 부흥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정부와 국민, 기업은 일본이 하루 빨리 피해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흥사업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한일 협력사업은 인프라 분야입니다.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하여 도로, 철도, 항만, 상하수도 등의 파괴를 복구하기 위한 대대적인 공공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은 필요하다면 일본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하여 기술, 장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한국기업이 일본의 피해지역에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협력방안 논의도 바람직합니다.

특히 일본 지자체가 외국기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야인 이와테현의 반도체와 자동차산업, 후쿠시마현의 재생에너지, 이바라키현의 태양광 등에 대해서 양국 간 민관 공동의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한일 양국을 둘러싼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은 달리기 좋은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장애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줄이지도, 돌아가지도 않기 위해서는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과거를 직시하면서 한 차원 높은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이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긴밀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발전과 평화를 위한 동반자, 나아가 세계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고 공동 번영을 누리는데 이 자리에 계신 기업인 여러분의 역할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일본 지진으로 인한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간바레 닛폰!(힘내라 일본!), 감사합니다.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 일본측 기조연설

前일본총리

아소 타로(麻生 太郎)



아소 타로입니다.

오늘은 44년이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매년 회의를 개최해 온 뜻 깊은 이 회의에 강사로 초청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기꺼이 수락해 주셨다는 소개가 있었습시다만, 사실은 다른 예정이 있었습시다. 저는 제 동생이 일본측 부단장직을 맡고 있는 관계상, 다른 예정을 취소하고 이렇게 참석하게 되어 조석래 회장님을 비롯한 제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과 만날 수 있었습시다. 오랜만에 만나 뵙는 분들도 많은데 참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가 있었습시다만, 기시 노부스케 초대 위원장, 3대 위원장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등 역대총리께서 회장을 맡아 오신 「일한협력위원회」에서 현재 회장직을 맡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의 관계는 아주 가까워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 확실히 한일관계는 과거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좋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조강연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3월 11일, 일본은 천년에 한번이라는 지진과 해일로 인한 재난을 당했습니다. 저는

재난 직후에 바로 피해지역을 다녀왔습시다만, 상상을 초월하는 대참사였습시다. 재난이 일어난 지 1년이 되었지만, 2만명이 넘는 사망자와 그리고 행방불명자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원전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대지진 직후 한국의 여러분께서는 다른 나라보다 먼저 구호품을 보내주셨고, 식량과 물 등의 생필품을 지원해 주셨고 거액의 의연금도 보내 주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일주일 후, 3월 18일에 주한일본대사관에 조문까지 해 주셨습니다. 현직 대통령께서 이런 식으로 조문한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5월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직접 미야기현을 방문하여 이재민을 위로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은혜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한국 여러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년 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셨는데, 과거 10년간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한일관계가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시다. 그야말로 주일한국대사관은 겨울의 시대였다고 할 정도라는 말도 있었습시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고 유명환 대사님께서 외무장관

에 취임하신 후부터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변화되어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저도 외무대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한일, 한미, 일미, 일한 등의 여러 회의에 제가 참석하였는데 분위기가 아주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1년에 평균 2번 정도 한국을 방문해 왔습니다. 50회 이상 방문하였는데, 이명박 대통령님도 외무대신에 취임 이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최근 몇 년 동안은 확실히 한국경제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거리의 지나가는 사람의 복장과 거리가 아주 깨끗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경제수준과 생활수준이 확실히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은 올림픽과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고 G20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은 아시아의 리더 나아가 세계의 리더국가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진국으로서의 자신감을 계속 가지고 더욱 더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까지는 일본의 음악, 잡지,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등은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규제가 보다 완화되어 일본에서 수입된 영화 등이 상영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측은 고노 외무대신이 협상을 하였는데, 한국에서는 일본영화의 수입으로 인해서 한국의 영화업계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붕괴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 일본영화의 영향으로 대량

의 한국영화가 일본으로 수출되었고, 일본 내에서는 한류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NHK에서는 「이산」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하였는데 시청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러한 한류붐은 아주머니들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라, 소녀시대 등 K-POP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수출된 첫 만화는 슬램덩크, 세일러문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단서를 만든 것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외교협상을 하는데 있어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많이 수출되고 수입되면서 한국의 대일감정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세대가 지금 40대가 되어있고, 또 이 40대 세대이후의 세대는 일본어를 쓰지는 못하지만 읽을 수는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모두 TV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TV게임의 공약을 위한 책자가 있는데, 비디오게임의 공약을 위한 그 책자를 먼저 보고 마스터하는 것이 학교에서 히어로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일본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먼저 빨리 자기 자신에 대한 이익도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빨리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50-60대는 일본어를 할 줄 아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30대, 40대는 영어와 일본어를 유창히 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는 매우 좋은 일이며, 시대가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토와 역사인식문제에 있어 양국 간에 인식의 갭이 있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로써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국은 이 지역,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별로 없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의 기본적인 개념을 공유하는 인식이 일치하고 있는 선진국입니다. 이런 공통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 지, 일본과 한국이 제3국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 지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은 보편적인 가치라는 것을 공유하고 있는 아시아의 선진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아시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의 주변국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로 재탄생하고 있는 국가들과 함께 자유와 번영이라는 것을 보다 확대시켜 나가는 일을 한국과 일본이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모두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자원이 없는 일본과 한국이 아시아의 선진국으로써 성장을 이룩해 왔다는 사실은 자랑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현재 일본은 브라질과 함께 아프리카의 모잠비크라는 지역에서 대두의 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광대한 토지를 갖고 있지만 많은 부분이 사막입니다. 약 50년전부터 그 사막지대에 일본계 이민자들이 대두를 재배하여 현재는 브라질에서 커피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농산물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수입되고 있는 대두는 미국산이 아니고 대부분 브라질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식량부족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모잠비크에서 재배해 보자는 것입니다. 모잠비크는 원래 포르투갈의 영토로 브라질 사람들은 포르투갈어를 할 줄 알기 때문

에 제가 외무대신 시절에 제안을 하였고 총리대신 시절에 사인하여 스터디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양국이 같이 추진하면 아프리카의 식량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반드시 같이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가치의 외교라는 측면에서 세계 각국의 신흥민주국가를 지원하는 사업도 우리들이 앞으로 많이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중국의 대두가 국제 정치확상 밸런스의 변화라는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아주 첨예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의 오바마 대통령의 백서를 보더라도 아시아의 방위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구무장관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습니다. 아직 일당 독재주의, 핵을 보유하고 있고 미사일도 갖고 있는 국가가 바로 옆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와 우리들이 같이 살아 나가야하는 것입니다. 핵개발 등의 추진에 대해서 우리들이 대처해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격동의 시기에 있어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 시장주의 국가로써 아시아의 안정된 세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도 번영하였고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에 뿌리내린 우리 국가가 번영을 이룩해 온 것입니다. 자원도 없이 교육과 인재육성을 통해 성장해 온 것입니다. 이런 양국이 함께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전보장 상, 그리고 경제발전상 이 지역에서 안

정적인 세력이 되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에서의 한일 협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방금 소재분야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역전본시를 경제산업성과 같이 제안했을 때 의아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벌써 4회째가 됩니다. 그리고 고교생교류사업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만, 확실히 이 사업들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한국어와 일본어가 아닌 영어로 토론을 한다는 점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유라고 봅니다. 이렇듯 우리는 각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고 아직도 협력의 소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정치인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아직 아시아에는 격차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라는 국가도 지금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와 일본은 공식적으로 대화를 개시하고 올해 20년여만에 미얀마 대통령과 의장, 상의 회장 등이 일본을 방문하고, 미얀마라는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일본은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경제적인 국력의 격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격차가 있는 나라들이 같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EU의 그리스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래도 격차가 많이 있는 나라들이 갑자기 협력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서서히 할 수 있는 부분

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경제적인 연계, 안보, 테러대책, 해적문제, 해상안전 등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개별적인 부분에 들어가 분야별 협력을 쌓아 올리는 것이 결국 좋은 협력관계로 연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과 한국은 비슷한 환경에 있고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들이 격의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육성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회의, 학생교류 등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런 젊은 분들과의 교류가 중요합니다. 적어도 서로를 잘 알고 있다, 식사와 술을 같이 하고 대화를 나누었다는 식의 경험 즉 인간관계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깊은 유대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인회의를 지금까지 계속 실시해 온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감으로써 1년에 한번씩 이 회의에 참석하면 반드시 만날 수 있는 인간관계가 결과적으로 양국의 관계를 더욱 더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런 회의가 계속 존재하고 일본과 한국의 사이를 뗀어주는 여러 가지 채널과 요소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양국이 아시아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공통된 이익을 위해서, 공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가일층의 발전을 위해 양국의 공통이익은 물론 아시아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기조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 특별강연

한일 경제협력의 新展開(이노베이션으로 新展開 모델구축을)

일한파트너십포럼 좌장

前 통상산업사무차관

후쿠가와 신지(福川 伸次)



조석래 한일경제협회 회장님,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님,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님, 신각수 주일대한민국전권특명대사님, 아소 타로 전 일본총리대신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후쿠가와 신지입니다.

일한파트너십포럼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개라는 차원에서 기업인과 연구인들이 모여 새로운 한일관계를 개척하기 위한 연구인들의 모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저의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일관계의 긴밀화를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온 한일경제인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경하드립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1974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통상협상 과장을 지냈던 때입니다. 그 당시는 살벌한 동서냉전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불행한 역사관계가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시기였고, 두 나라의 경제관계는 초기단계였습니다. 그 후 40년이 지난 현재, 두 나라는 빠른 속도로 상호신뢰를 회복했고, 경제, 문화 교류를 발전시켜 두 나라의 관계는 진화를

거듭하였습니다. 그 커다란 계기가 된 것이 1998년. 10월의 한일공동선언이었습니다.

양국 정상에 슬픈 외교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이 4차례에 걸쳐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국 간의 아주 다양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일본에서는 한류붐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겨울연가는 한일 두 나라의 봄의 소나타를 들려준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의 상징으로서 애니메이션 혹은 패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2년의 월드컵 축구의 공동개최를 계기로 스포츠 분야의 교류도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인적교류는 2010년에 약 546만명을 달성하였습니다. 두 나라를 찾는 외국인 중에 한국과 일본이 각각 톱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간의 자매결연 건수는 2011년 1월 현재 134건에 이르렀고, 일본의 16개 공항으로부터 주 618편의 정기편이 한국에 취항하고 있습니다. 로우코스트캐리어(LCC)가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 수는 더욱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론동향에 대해 일본의 내각부가 실시

한 외교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한일 양국이 양호한 관계라고 응답한 사람이 66.5%, 한국에 친근감을 느낀다는 사람이 63.1%에 달했습니다. 이는 3년 전과 비교해 볼 때, 각각 90%, 4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의 대일감정은 여전히 복잡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서서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경제관계도 급속도로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무역은 수출입 모두 증가되고 있으며, 양국은 각각에 있어 중국, 미국에 이은 제3위의 무역상대국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가 서로 유사하다보니 전기전자기기, 기계류, 자동차산업 분야에서 산업 내 무역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만성적인 대일적자도 최근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1998년 이후에 한국정부의 투자촉진대책 그리고 2003년에 한일투자협정 발효 등을 통해 한국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대한투자는 연간 10억불에서 20억불 수준입니다. 한국의 투자유치정책 혹은 공향, 향만과 같은 인프라 정비, 그리고 FTA 체결 등 한국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침으로서 일본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1997년 IMF위기를 극복하고 최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기업들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이라는 면에서 세계생산의 TOP을 기록하고 있고, 4월 23일 북경 모터쇼가 개최되었습니다만, 중국시장에서 가장 세어가 큰 것이 폭스바

겐인데, 중국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자동차 생산업체는 현대자동차라고 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고 그리고 최고의 수익력을 거두는 실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APEC, G20, UN 등과 같은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인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흐름에 호응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화를 향한 움직임은 우리 한국과 일본을 맺어주는 강력한 유대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일관계는 이처럼 꾸준히 발전하고 있고 향후에도 힘차게 걸어나갈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합니다.

두 나라의 경제는 상호 우호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기초적인 여건이라는 면에서 최근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세계의 파워구조가 다극화되면서 질서유지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질서의 기축이었던 미국의 지도력이 저하되고 있고, EU는 서브린리스크(sovren risk)로 인해서 정치 경제가 모두 표류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 같은 아시아국가들이 높은 성장력을 유지해 세계의 경기회복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경제는 G8체제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초적인 여건 변화를 반영되어 최근에는 G20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인 금융의 안정과 불황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면에서는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합니다. 한일 두 나라는 지금까지 국제질서를 어떤 주어진 여건으로 생각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국

제철사의 재건운영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문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발전시켜 온 이 산업문명은 지구상의 자원은 무궁무진하고, 대기순환 기능은 영원하다고 하는 전제에 입각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원에너지 공급이 한계를 드러내고, 지구온난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은 이러한 전제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계 주요국가들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원자력에 많은 부분을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이런 움직임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해 자원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고도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적창조력이 넘치는 새로운 산업문명 구축에 힘써야만 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되었던 2008년 이후의 금융위기는 시장원리주의와 금융우위적 경제운영에 경종을 울리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또 금융완화, 재정진작과 같은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은 꼭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셋째, 인구동태의 변화입니다. UN의 예측에 의하면, 세계인구는 2010년에 69.1억 명에서 2050년에는 91.5억 명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증가율을 보면, 선진국이 0.3%, 개도국은 1.3%로 증가율이 예측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동태 변화는 자원에너지, 식량 등의 수급이라는 면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또 경제성장률도 좌우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계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부터 검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이미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평균 출생아수, 즉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수입니다만, 2009년에 일본이 1.37, 한국은 1.15였습니다. 즉, 두 나라 모두 인구유지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입니다. UN의 예측에 의하면, 일본의 인구는 2010년에 1억 2,700만 명에서 2050년에는 1억 100만 명으로 줄어들고, 한국은 4,800만 명에서 4,400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는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금리를 상승시키고, 시장을 축소시키고 세대간 대립을 초래하고 그리고 성장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한일 두 나라는 지금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 아주 주도면밀한 대책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두 나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전개해야 할까요? 두 나라는 천연자원이 많지 않아 가공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해 왔습니다. 그 만큼 두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세계화」야말로 경제를 존립시킬 수 있었던 기반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요동치는 국제환경속에서 보호주의를 배척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고, 글로벌리즘을 정착시키고 그리고 이노베이션을 통해 새로운 성장을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두 나라의 경제운영의 요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4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두 나라가 새로운 산업혁명의 선두에 선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원의존 혹은 낮은 환경부하 그리고 실수요에 뿌리내린 성장모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가

치를 충족시키고, 정신적인 만족을 도모하고 문화적 욕구를 위한 이노베이션에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의 측면은, 그린이노베이션(녹색혁신)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일본과 한국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요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환원제철강이라든지 생물화학과 같은 새로운 제조법을 확립하고, 그리고 초전도소재라든지 단열재와 같은 소재를 개발하고, 또 친환경상품 혹은 친환경주택, LED, 차세대자동차, 축전, 축열장치 등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면에서는 태양열, 풍력, 조력, 지열, 수력과 같은 자연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원자력의 안전기술을 더욱 개발해서 에너지공급의 최적의 콤비네이션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그리드라든지 생태도시와 같은 사회시스템 개발에도 함께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산업혁명의 2번째 측면은, 생활을 혁신하는 라이프 이노베이션의 추진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고령화 사회를 구현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의료기술을 진보시키고 그리고 요양보호 시스템을 계속 개선하고, 요양보호 로봇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재난에 강한 도시를 만들고, 생활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고 문화적이고 매력 넘치는 도시생활을 제공하고,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것 등이 과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측면은 문화활동의 진화 즉, 컬쳐 이노베이션의 촉진입니다. 국제경쟁의 요소들은 과거에는 수량, 품질, 가격 등이

요소였는데, 최근에는 매력, 품격, 감성 등의 부분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매력적인 패션 즉, 상품에 있어 문화성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애니메이션 시즈와 같은 콘텐츠와 전자음악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문화 등, 슈퍼 하이비전과 DVD, 스마트폰 등의 문화전달 수단 등이 그 예입니다. 저는 산업과 문화,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야말로 새로운 성장을 리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FTA의 추진입니다. 한일 FTA 협상은 2002년 12월에 시작해 2004년에 중단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의 동향을 보면, 지금은 FTA가 주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WTO에 등록된 FTA는 1990년 말 27개가 2010년 7월 현재 474개로 늘어났습니다. FTA의 무역이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일본은 17.6%로서 비교적 낮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35.8%입니다. 미국은 38%, EU는 역외만 보아도 27.2%입니다. WTO의 뉴라운드협상이 정체되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자유무역을 수행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 FTA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근 한중일 3국간 FTA를 추진하려는 기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국 정상회담의 합의를 토대로 2010년 5월에 시작된 정부차원의 산학관 공동위원회는 작년 12월 26일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즉, 3국 FTA는 무역투자를 촉진하여 폭넓은 3국간 협력을 발전시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통합 프로세스의 진전에도 기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4월 23일 북경에서는 민간 싱크탱크인 일본의 일중산학관교류기

구, 한국무역협회, 중국국제교류중심이 모여 이 문제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그 결론은 민간입장에서 3국의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일, 일중, 혹은 한중 3개의 FTA를 추진하고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석래 회장님은 수준 높은 FTA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과 중국과 한국, 그리고 동아시아까지도 시야에 넣은 FTA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나라 간의 FTA도 의미가 있지만, 3국 간 FTA쪽이 더욱 더 3국의 서플라이 체인을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고, 보다 넓은 시장에서 이노베이션을 가속화 시킬 수 있고 그 결과 커다란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른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4도 되고 5도 되는 그런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기업활동의 활발화를 위한 조건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경제활성화의 관건은 활발한 기업활동입니다. 지난 3월에는 7년에 걸친 협상을 통해서 한중일 투자협정이 합의되었고, 지난 정상회담에서 서명되었습니다. 또 3국의 FTA로 이같은 기업환경정비라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혁명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한일이 이노베이션이라는 부분에서 세계를 리드해 가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국경을 넘은 산학관의 연구협력, 공적지원을 통한 대형 기술 프로젝트 실시, 주재권 제도의 적절한 운영,

사실상의 표준을 위한 협력, 그리고 기업인 교류확대, 전문인력 양성과 자격증제도의 공동화 등의 면에서 두 나라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나라는 농림수산업 부문에 여러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적인 기법, 경제적인 기법 등을 도입함으로써 이 분야의 구조개혁에 관련된 경험을 서로 교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 과제는 위기관리 정책면에서의 협력입니다. 동일본대지진 때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기업, 한국의 친구 분들께서 따뜻한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최근 이와 같은 자연재앙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뿐 아니라 중남미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앙은 그야말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이와 같은 위기나 위협이라는 것이 자연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정세는 지금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그 예입니다. 그밖에 안보, 핵확산, 테러리즘, 재정악화, 식량부족, 에너지 불안, 해상수송의 위협, 인구동태 변화 등 예기치 못했던 위기나 위협이 한일 두 나라를 덮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국정부와 민간은 꼭 사전에 그 위기관리 절책방안을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기 혹은 위협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기의 영향을 극소화시키기 위한 사전적인 위기관리도 필요합니다. 불행하게도 위기나 위협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피해를 극소화시키고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사후적 위기관리도 역시 필요합니다. 또 위기나 위

협에 대한 저항력 혹은 대응력을 높이는 구조적인 위기관리도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제, 정치, 자연이라는 면에서 앞으로도 위기가 빈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에서 미리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한일 두 나라의 공통과제라 생각합니다. 이노베이션의 가능성은 우주와 같이

넓습니다. 또 인간의 예지는 샘솟듯 무한합니다. 산업구조가 비슷한 두 나라의 기업들이 정부지원 하에 예지를 결집시켜 이노베이션에 도전해 간다면 반드시 새로운 성장모델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는 한일 두 나라의 경제계가 명확한 비전을 그리고 함께 협력하면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알아야 할 세무·회계 상식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기업이 사업을 영위할 때 세금문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사업자가 세금에 관하여 정확한 지식이 많아질수록 불필요한 세금납부를 방지할 수 있고 혜택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포착할 수 있다.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의 창업시 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다.

감면요건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창업 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으로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따라서 수도권 억제 권역내 창업자나 유흥업 등 일정 업종에 해당하는 창업자는 대상이 아니다.

지원내용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의 개시일 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 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만약 창업 이후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5년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년간을 감면기간으로 한다.

지방세의 감면도 있다. 창업후 4년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감면이 있고 창업 이후 5년간 사업용 재산의 50%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다.

[문의] 세무사 김 만연 / 동산 세무·회계 사무소
TEL: 031-202-3531

Only-One 일본기업 50 <제9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기업연구센터에서 기획하고 오태현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 교수가 지은 [Only-One 일본기업 50]을 연재합니다. 기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한계에 도전하는 기술지향형 중소기업’, ‘성장이 기대되는 신시장개척형 중소기업’, ‘생산체제를 개혁하는 자기혁신형 중소기업’, ‘세계시장을 누비는 글로벌형 중소기업’으로 유형별로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소개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독창적인 기술과 제품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로 유일무이한 Only-One 기업으로 불릴 자격과 능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례를 통해 빅 컴퍼니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적지 않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벌레’의 집념이 세계시장을 장악하다

오사카 진공기기제작소

大阪真空機器製作所

01

❖ 기업개요

회 사 명 | 株式會社大阪真空機器製作所

소 재 지 | 大阪市中央區北浜3-5-29

홈페이지 | <http://www.osakavacuum.co.jp>

설립연도 | 1950년

자 본 금 | 3억 5천만 엔

분 야 | 진공기기, 진공펌프 제조 판매

❖ 생산 제품

일본에서 오래전에 유행했던 말이지만 ‘전후(戰後) 강해진 것은 여자와 양말’이라는 말이 있다. 태평양전쟁이후 급격하게 변하는 다양한 제도로 인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고 이에 따른 남녀동권의 시대가 열리면서 생겨난 말이다. 그런데 같이 언급된 양말은 무슨 뜻에서 같이 쓰였을까?

당시 획기적인 합섬섬유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나일론’으로 만든 양말의 등장을 두고 한 말이었다. 금방 달아 구멍이 나던 기존의 양말과는 달리 질기고 매끄러운 감촉이 나일론의 매력이었다. 그런데 이 나일론 제조에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진공장치였다.

당시 테이진(帝人), 토우레(東レ)등 일본을 대표하는 합섬업체들이 앞 다투어 진공기기를 사들였는데, 대부분 오사카진공기기제작소의 제품이였다. 나일론에 이어 폴리에스테를 제조를 시작한 섬유업체들은 계속해서 오사카진공기기제작소의 진공기기를 구입해서 합섬섬유를 만들었고, 일본의 합섬산업은 1960년대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다.

진공기기가 필요한 곳은 합섬분야가 전부가 아니다. 인스턴트 라면에서 우주항공 분야에 이르기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된다. 인스턴트 라면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조과정에 진공기기가 사용된다. 한편 우주로켓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정밀한

궤도계산이 필요하다. 이 계산을 위해 우주 공간과 동일한 조건을 만드는 데 진공기기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오사카진공기기제작소는 이와 같은 진공기기 중에서도 특히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알려진 터보분자펌프(turbo molecular pump)분야에서 가장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고난위의 기술로 평가받는 핵융합분야에서는 거의 독점적 위치에 있다.

❧ 발전 과정

오사카진공기기제작소는 1950년에 설립되었다. 앞서 설명한 나일론의 등장에 따른 합섬업체들로부터의 수요가 있기까지는 진공기계의 용도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실제로 이 회사가 진공기계 사업을 시작한 것도 원자폭탄의 우라늄을 만드는 데 진공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서 착안하였다. 또한 진공기계 그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그 활용 방법 역시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우레(東レ)가 나일론을 일본에서 처음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진공기계의 수요가 늘어났고, 후지제철(현재의 신닛테츠) 등의 철강업체가 진공기계를 사용하면서 사업을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제작했던 것은 터보분자펌프가 아니었다.

❧ Only-One 기술

터보분자펌프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펌프를 이용하면 연속배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용량처리를 할 수 있고 고도의

정밀도를 구현하는 진공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일본에서 이 기계의 개발을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오사카진공기기제작소이다. 터보분자펌프의 구조가 항공엔진과 유사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았다.

현재 이 회사의 사장은 대학시절 도쿄대학교 항공원동기학과를 다녀 항공기와 관련된 최신의 정보와 관련기술은 습득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으나, 세계 어느 나라의 기업도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는 새로운 기술개발은 시행착오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다. 몇 권 안 되는 관련 전문서적을 뒤적여 힌트를 얻고 도쿄대학교 시절의 선배와 동기들로부터 관련정보를 얻어가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는 도쿄공업대학교의 지원도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국 터보분자펌프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사실상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터보분자펌프가 완성된 1976년 당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핵융합과 플라스마연구 시설 등 극히 제한된 분야였기 때문이다. 수요가 극히 적어 개발하는 데 들어간 수익엔의 자금을 회수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다. 생산을 담당했던 하치오지(八王子)공장도 10년 가까이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했다.

더욱이 터보분자펌프의 수요가 반도체와 전자현미경 등의 분야에서 본격화되자, 많은 경쟁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어 가격이 절반가까이 낮아졌다. 이렇게 시장상황이 급변할 무렵 오사카진공기기제작소는 다른 회사가 만들지 못하던 핵융합 등에 이용되

는 초대형 터보분자펌프개발을 수주했다. 이 개발을 무사히 마무리함으로써 세계최대의 터보분자펌프를 완성시키는 쾌거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타사와의 기술적 격차를 크게 벌렸다. 또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복합분자펌프 등 새로운 진공기계를 잇따라 개발하여 진공기술상과 일본기계학회상을 수여했다.

❖ 성공 비결과 향후 전망

당초 이익창출이라는 사업의 기본조건을 갖추지 못하던 진공기계 개발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벌레’로 불리는 사장을 비롯한 기술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진공기술에 특화한 전문기업이라는 경영방침을 창업 이래 줄곧 유지한 것도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이 회사는 그동안 쌓아올린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한국에 영업거점을 개설하고 국제적 생산네트워크 확립을 서

두르고 있다. 한편 앞으로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는 분야가 러시아 등과 함께 한국도 참여하고 있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프로젝트이다. 태양에너지는 핵융합에 의해 발생하지만 무공해 에너지이다. 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은 간단하게 말하면 태양과 같은 핵융합반응을 지구상에서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초대형 과학프로젝트이다. 성공하면 태양과 같이 공해가 전혀 없는 깨끗한 에너지를 인류가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진공기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회사의 기계가 이 프로젝트에 채택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분명 오사카진공기기제작소가 유력한 후보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참고자료〉

오사카진공기기제작소 홈페이지

(<http://www.osakavacuum.co.jp>)

黒崎誠(2003), 『世界を制した中小企業』, 講談社 現代親書.

주요제품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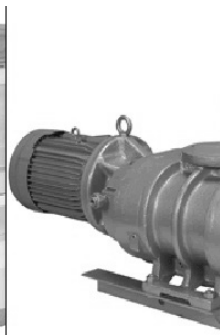
〈진공시스템〉



〈유회전진공펌프〉



〈터보 분자 펌프〉



〈루트진공펌프〉



〈액봉식진공펌프〉

작게 만들어야 살아 남는다

02 NSK마이크로 프리시전 NSK マイクロプレジジョン

❖ 기업개요

기업개요

회 사 명 | NSK 마이크로プレジジョン
株式會社

소 재 지 | 東京都千代田區大手町2-6-2

홈페이지 | <http://www.nskmicro.co.jp>

설립연도 | 1949년

자 본 금 | 4천 7백만 엔

분 야 | 베어링 제조 판매

❖ 생산 제품

어른이나 애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치과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각종 치료에 따르는 통증도 통증이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마도 입안으로 들어와 치아를 깎는 기계에서 나는 소름끼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그 소리가 그리 크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다.

이 기계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 바로 베어링이다. 치아를 깎는 데 사용되는 기기의 끝부분에는 1분에 28만 번의 회전을 하는 초고속부품이 달려있다. 이 회전이 빠르면 빠를수록 치아를 부드럽게 깎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통증도 적어지고 위화감도 확실하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1분당 회전회수가

수 만 번밖에 안되었던 기존의 제품은 치아를 무리하게 깎아서 통증은 물론이고 환자가 느끼는 거부감도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초고속 회전에는 종전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베어링이 들어가 있다. 이 베어링은 정도(精度)가 높아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초소형으로 내구성까지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베어링을 세계최초로 개발한 것이 NSK마이크로 프리시전(이하, NSK)이다.

❖ Only-One 기술

베어링은 기계의 회전부위의 마찰을 줄이는 중요한 부품이다. 자동차, 공작기계, 전자기기 등 쓰이는 영역이 너무나 넓다. 극단적이지만 가령 이 세상에 베어링이 없었다면 모든 자동차와 기계는 멈춰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베어링을 만드는 나라도 많고 기업도 전 세계에 수도룩하다. 그런데 제조기술 측면에서 일본 업체들이 만드는 제품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모든 일본 업체가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NSK가 가진 차별화된 장점은 바로 초소형에 있다. 6밀리 이하의 소형 베어링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상을 확고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분야는 대기업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틈새시장으로 세계 최고의 제조기술을 자랑하는 일본의 몇몇 중소기업만이 제품생산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치과용 치료기기에 들어가는 베어링은 카나가와(神奈川)현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지만 일부 공정은 반드시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한다. 고도의 정밀도를

필요로 하는 베어링 제조는 기계만으로는 안 된다. 숙련공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손맛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기계의 성능을 뛰어넘는 숙련공의 기량이 이 회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 회사의 기술과 기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치과용 베어링만으로는 수요창출에 한계가 있다. 현재 이 회사의 제품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분야는 하드디스크의 스피들(spindle, CD-R, DVD-R 등의 패키지 형태의 하나)등의 IT 업종이다. IT관련기기는 6개월만 지나도 퇴물취급을 받을 정도로 치열한 개발경쟁이 빠르게 전개되는 영역이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관련기기가 앞 다투어 소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고성능 기기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기기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베어링 역시 보조를 맞추어 초정밀의 섬세함은 물론이고 타사에 비교하여 한 치라도 작은 소형화가 불가피해진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치과용 치료기기에 들어가는 소형베어링을 만드는 기술이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베어링은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기는 하지만 전체 생산 제품의 약37%는 자동차 제조에 들어간다. 그리고 일반기계용으로 16%가 쓰이고, 7%정도는 전기기기용이다. 실제 정밀기기용으로 만들어지는 베어링은 3%에 불과하다. 그러나 NSK가 만드는 6밀리 이하의 베어링은 자동차와 공작기계에도 쓰이지만 주로 전자기기와 정밀기기에 사용되는 부품이다. 이 회사는 베어링 업계에서도 특이한 6밀리 이하의 초소형 제품메이커로 이른바 틈새시장 공략에 성공한 기

업이라 할 수 있다.

❖ 성장과정과 상대적 우위성

NSK는 1949년에 설립되었다. 볼펜 끝에 들어가는 강한 금속으로 만들어지는 볼(Ball)을 생산할 목적으로 만든 회사였다. 즉 사업초기부터 소형제품 분야에 특화된 사업전략을 강구했으며, 이 전략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초소형 베어링 생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은 것은 1951년경이다. 시장에서의 수요가 반드시 증가할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과감한 투자였다. 이 예상은 적중했다. 1950년 중반 이후 초소형 베어링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 회사는 주문물량의 납기를 맞추기 위해 연일 야간작업을 해야만 했다.

창업한지 60년이 되어가지만 그 동안 NSK는 소형베어링에서 초소형베어링으로 생산의 중심을 점진적으로 옮기면서 오히려 보다 작은 베어링 생산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쏟았다. 결국 이러한 확신과 고집이 차별화된 기업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주요했다고 볼 수 있다. 대기업과 비교하여 연구개발비가 적지만 소형분야에만 특화하는 것으로 상대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전문업체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세계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NSK가 제조하는 소형베어링의 가공정밀도는 0.1미크론 단위로 제품에 따라서는 나노(10억분의 1미터)단위의 초정밀 가공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초정밀 가공의 모든 작업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제작한 생산기계시스템에서 이루어진다. 다만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부 제품은 해외

거점으로 생산을 옮기고 있으며, 일본국내에서는 미크론 단위의 정밀도가 필요한 초소형 베어링분야의 생산만 하고 있다. 즉 일본국내 공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시스템의 대부분이 자체개발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최종 마무리단계는 100% 자체적으로 제작한 기계에 의해 작업이 진행된다.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만드는 기계에는 오랜 세월 동안 사내에 축적된 제조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기계의 상당부분은 실제 작업하는 사원이 설계도를 그려 만들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생산기계를 움직이는 것은 같은 작업을 수 십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 오면서 기술을 연마한 숙련공들이다.

일반적으로 완전 자동화된 기계라 할지

라도 숙련된 기술자가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원이 하는 것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가령 똑같은 설비를 해외로 이전하여 같은 공정을 시도하더라도 그전 제품의 질적 우수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인건비 등의 저렴한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해외로 생산거점을 이전하여 낭패를 본 기업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NSK와 같은 정밀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더없이 소중한 자산이 바로 숙련된 기술자가 아닐까싶다. 

<참고자료>

NSK 홈페이지(<http://www.nskmicro.co.jp>)

黑崎誠(2003), 『世界を制した中小企業』, 講談社 現代親書.

주요제품 사진



<스러스트볼베어링>



<피벗볼베어링>



<베어링 슬라이드 웨이>



<한계(限界)케이지>



<간이측정기>



<피벗ASS'Y베어링유닛>

일본 국내시장 100%를 장악하다

03

스택전자 スタック電子

❖ 기업개요

회 사 명 | スタック電子株式會社
 소 재 지 | 東京都昭島市武蔵野
 홈페이지 | <http://www.stack-elec.co.jp/>
 설립연도 | 1971년
 자 본 금 | 7천만 엔
 분 야 | 전압·주파수 계측기용
 전압검사단자

❖ 생산 제품

2003년 9월 18일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일본 천황의 산업시찰 일정에 도쿄에 위치한 스택전자라는 회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주로 대기업을 방문해 오던 기존의 관행을 깨고 1990년대 초반의 오랜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일본경제의 탄탄한 기초체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대표적인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들을 찾은 것이었다.

스택전자는 고주파(高周波)와 관련한 전송기와 전자계측기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전압·주파수 계측기의 심장부로 일컬어지는 전압검사용 단자 시장을 100% 장악하고 있다. 즉 일본에서 전압·주파수 계측기를 만드는 모든 회사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일본 국내시장 점유율이 100%에 육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 업체 중에서도 스택전자의 전압검사용 단자

만을 고집하는 기업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압검사용 단자뿐 아니라 위성통신장치에 사용되는 제품의 80%는 스택전자의 브랜드로 직접 판매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 독창적인 기술을 구사한 제품으로 대기업을 단순한 하청기업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으며 성장을 하고 있어, 다른 중소기업에게 모범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Only-One 기술

스택전자의 전압검사용 단자가 세계 시장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다른 아닌 회로에 장애를 주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전압·주파수 계측기는 전자기기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가를 검사하는 기기이다. 전압검사용 단자는 이 검사에 쓰이는 부품으로 업계에서는 ‘전기(電氣)의 청진기’로 불린다.

통상적으로 기계류를 검사할 때 가동을 중지시키고 하는 것이 제일 간단하다. 그러나 가동을 일부라도 중단하면 생산라인을 전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경우 회로에 장애를 주지 않는 스택전자의 전압검사용 단자를 사용하면 생산라인을 멈추지 않고 검사를 할 수 있다.

종래의 전압검사용 단자는 가동을 멈추지 않으면 검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스택전자의 제품은 업계의 상식을 깨뜨리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이 제품의 개발로 스택전자는 일본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까지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압검사용 단자 분야에서는 세계 제일

의 업체로 인정받고 있지만 현재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로 감소한 상태이다. 이렇듯 비중이 감소한 것은 전압검사용 단자의 매출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다른 각종 전자계측기기, 통신기기용 부품 등의 매출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들 제품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위성통신장치, 고주파전송기기 및 휴대전화 등의 정보관련 장치에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완성품 시장에서 스택전자의 사명이 거론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관련 부품업체에서는 기술력을 인정하는 유명한 회사로 정평이 나 있다.

일본 경찰청에서도 범인 검거에 장애가 되는 휴대전화 도청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택전자의 고주파전송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지금의 스택전자는 전압검사용 단자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원래는 고주파전송기기와 관련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이 모여 설립한 회사이다.

즉 회사를 창업하고 10년이 지나 원점으로 돌아가 ‘고주파전송기기의 전문 업체’로 거듭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진입장벽이 유난히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있는 방송·위성·통신기기 시장에 과감하게 도전한 결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신제품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제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2GHz 대역의 지상중계국 안테나 장치에 설치되는 기계류는 스택전자의 높은 전송기술이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안테나의 방향을 변경하지 않고 송수신전파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통신영역을 자유자재로

조정하는 데 성공했다. 이 기술의 개발 성공으로 휴대전화의 통화 혼잡정도를 크게 완화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었다.

❖ 성장과정과 향후 전망

스택전자는 1971년에 창업하였다. 커넥터(connector)를 생산하는 대기업에 근무하던 기술자 4명이 독립해서 만든 회사이다. 창업자 4명은 당시 모두 20대의 젊은 기술자로, 가장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 26세에 불과했다. 본사와 공장은 현재 사장 타지마(田島)의 자택을 그대로 사용할 정도로 자금여력이 없었으며, 4명이 당시 출자한 금액은 모두 합해 100만 엔이 채 안 되는 금액이었다. 스택(stack, 스택)이라는 사명은 4명의 이름 앞 글자를 하나씩 붙여서 만들었다. 타지마(田島)사장은 20대 전반부터 기술력을 당시의 근무회사로부터 인정받아 일본전자공업회의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 日本工業規格)위원회 위원을 역임할 정도였다. 사업초기에는 당시의 위원회 인맥에 의존하여 수주를 시도하였으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창업한지 1년이 지나 겨우 제품의 기능을 인정받아 대기업으로부터 납품의뢰를 받았으나, 하청기업이 되는 것이 조건이었다.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할 절호의 기회로 생각한 다른 창업멤버는 조건을 수락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타지마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독립해서 회사를 만들었다. 지금 회사가 어렵다고 하청기업으로 전락하면 영원히 그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반대했다. 결국 창업 멤버는 1명을 남기고 모두 회사를 떠났다.

고주파전송기술을 기초로 한 전압검사용 단자를 관련 대기업들이 파트너로 인정하고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품을 만들 자금이 문제였다. 일반 금융회사에서는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에게 용자를 해주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자금이었다.

독립한 기업이 어려운 난관을 뚫고 성공한 사례로 보이지만, 스택전자의 진정한 강점은 생산제품의 80% 이상을 상장된 대기업에 직접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내에서 모든 것을 제품화하는 것이 아

니라 제조의 거의 대부분은 외부기업에 의뢰하여 만들고 있다. 따라서 100명에 달하는 사원의 대부분은 연구개발 인력으로 창업 이래 줄곧 철저하게 기술 집약형 기업을 지향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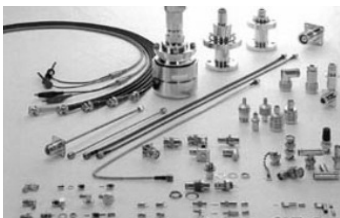
스택전자 홈페이지

(<http://www.stack-elec.co.jp>)

經濟産業省 中小企業廳編(2006), 『元氣なモノ作り中小企業300社』.

黒崎誠(2003), 『世界を制した中小企業』, 講談社 現代親書.

주요제품 사진



동축 커넥터/동축 케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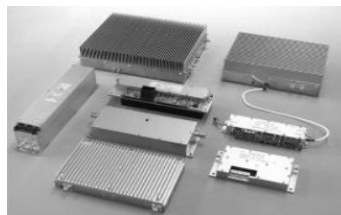
계측용 악세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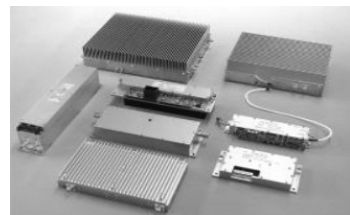
동축컴퍼넌트



광섬유 관련 제품



시스템 제품



프로브

회원가입안내

1. 개요

한일경제협회(www.kje.or.kr)는 자매기관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www.kjc.or.kr)과 함께 한일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시키고 상호교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정립에 기여해 오고 있으며, 한일 양국 경제인의 교류 활동을 통해 상호이해와 상호신뢰 구축은 물론 활발한 인적교류 등 민간에 의한 경제외교 활동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 회원 자격

우리협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한일 양국의 경제적 이해와 협조 및 친선을 위하여 유대를 갖고 있거나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국내외 개인, 법인 및 단체

3. 회원가입 및 회비

- 회원가입 : 소정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회비와 연간회비를 납부하여야 함
- 회비구분

구 분	전년도 매출액기준	입회비	년회비
일반회원사	50억 이상	10만원	80만원
	50억 이상	10만원	20만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424-04-104432 한일경제협회

4. 중점사업

- 한일경제인회의 사업 (년 1회)
- 한일 및 한중일 지역간 교류협력 사업 (한·큐슈, 한·호쿠리쿠, 환황해경제교류)
- 한일청소년(고교생교류캠프)교류 사업
- 기타 한일양국 경제협력을 위한 사업
- 회원사 간담회 (주일대사초청간담회, SJC와의 간담회, 친선교류활동 등)

5. 회원사 특전

- 협회주최 및 자매기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사업 참여 기회 제공
- 연구조사, 보고서 제공
- 협회 소식지 및 일본정보[지식리포트] 제공
- 협회 보유자료 열람
- 일본기업 소개·비즈니스 정보·신기술동향 등의 일본기업정보 제공 (수시)
- 비즈니스 상담회, 기술지도, 일본연수 사업 참여

6. 문의처

135-82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2동 112-15번지 한일재단B/D 4층
 김정호 부장 (TEL: 02-3014-9886 E-mail : jhkim@kje.or.kr FAX : 02-3014-9899)
 한수아 사원 (TEL: 02-3014-9888 E-mail : sahan@kje.or.kr FAX : 02-3014-9899)

한일경제협회 신임 상임이사/신규가입 회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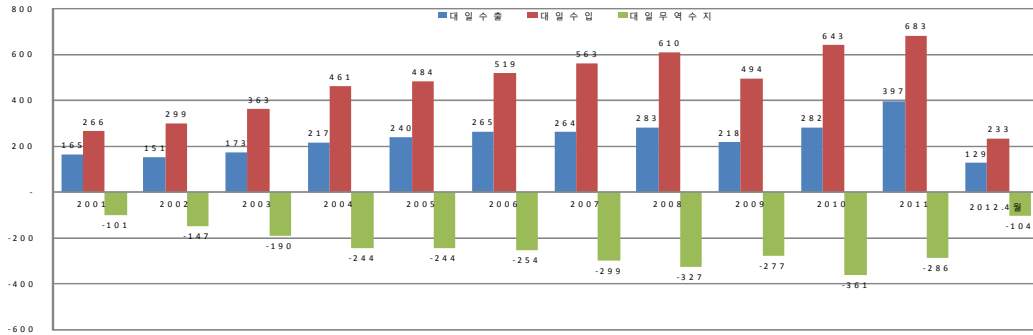
신임 상임이사

(주)한웰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45-7 한웰빌딩 8층 ○www.hanwell.co.kr ○종업원수 : 6,000명 ○업 종 : 무역·물류·유통·건설·온라인 쇼핑 등
박정부 회장	

신규가입 회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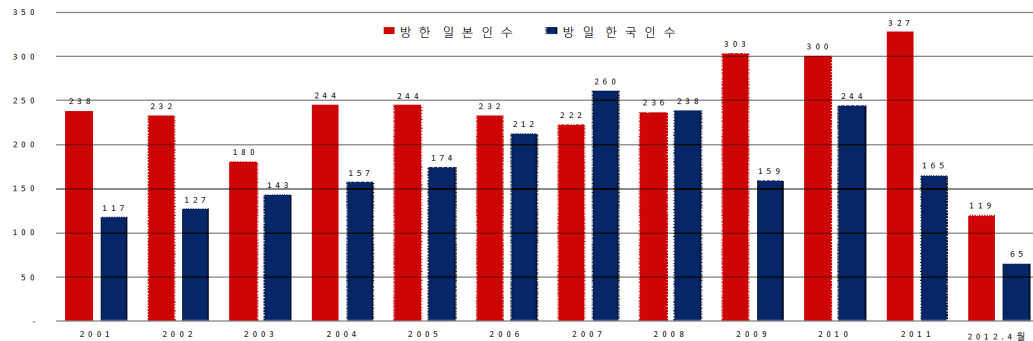
재영솔루텍(주)		(주)삼정산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6번지 ○www.jysolutec.com ○종업원수 : 320명 ○업 종 : 주형 및 금형 ○생 산 품 :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리 363-1 ○www.sjconc.com ○종업원수 : 37명 ○업 종 : 기계 ○생 산 품 : 토목자재
김학권 대표이사 회장		이희만 대표이사	
현우무역(주)		이앤에이웰(주)	
	○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1685-3 아크로비스타오피스텔 310호 ○종업원수 : 4명 ○업 종 : 수출·도매업 ○생 산 품 : 의류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3동 277-50 동성빌딩 209호 ○www.enawell.com ○종업원수 : 10명 ○업 종 : 의료정밀 ○생 산 품 : 환자용 기능성 침대 등
이봉현 대표이사		고선태 대표이사	

한일 교역 현황 (단위 : 억불)



구 분	총수출 (A)	총수입 (B)	총교역액 (C=A+B)	대일수출 (D)	대일수입 (E)	총대일교역 (F=D+E)	대일수출비중 (G=D/A)	대일수입비중 (H=E/B)	대일무역수지 (I=D-E)
2001	1,504	1,411	2,915	165	266	431	11.0%	18.9%	-101
2002	1,625	1,521	3,146	151	299	450	9.3%	19.6%	-147
2003	1,938	1,788	3,726	173	363	536	8.9%	20.3%	-190
2004	2,538	2,245	4,783	217	461	678	8.5%	20.6%	-244
2005	2,844	2,612	5,456	240	484	724	8.4%	18.5%	-244
2006	3,255	3,094	6,348	265	519	785	8.2%	16.8%	-254
2007	3,715	3,568	7,283	264	563	826	7.1%	15.8%	-299
2008	4,220	4,353	8,573	283	610	891	6.7%	14.0%	-327
2009	3,635	3,231	6,866	218	494	712	6.0%	15.3%	-277
2010	4,664	4,252	8,916	282	643	925	6.4%	15.1%	-361
2011	5,552	5,244	10,796	397	683	1,080	7.2%	13.0%	-286
2012. 4월	1,811	1,774	3,585	129	233	362	7.1%	13.1%	-104

한일 인적교류 현황 (단위 : 만명)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4월
방한 일본인수	237.7	232.1	180.3	244.3	244.0	232.0	221.6	235.8	303.2	300.4	327.0	119.4
방일 한국인수	117.0	126.6	142.7	156.9	173.9	211.7	260.1	238.3	158.7	241.5	165.8	64.5
계	354.7	358.7	323.0	401.2	417.9	443.7	481.7	474.1	461.9	541.9	492.8	183.9

(출처) 한국무역협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일본정부관광국(JNTO)